

# 말저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

29면에서 계속

불 일체 중생들이 다 들어 있으니, 항상 같이 혼합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정된 게 없이, 붙들어맨 게 없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초가 단단히 돼야만 이 뜻을 알겠기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란 이 우주 전체의 근본이며 그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다 이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실이 진리니까요. 그리고 생활이 과학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놓아야 하는 겁니다. 병이 낫어도 악업 선업이 한데 뭉치고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뭉쳐진 몸통이니까 내가 산 것대로, 인연을 지은 것대로 천차만별의 모습을 해 가지고 악업 선업이 뭉쳐져 나왔으니,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에서 해결을 하게끔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는 거죠. 아파도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거기서 밖에 해결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기쁜 생각이 있으면 '히! 감사하구나.' 하는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아신다면 일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업 선업으로 뭉친 게 있어서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조금만 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불끈불끈 일어나면 그게 화탕지옥에 속하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싸우고 이수라장이 되는 것도 바로 지옥입니다. 이수라지옥. 그러면 지옥을 어디서 갖다 주느냐.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영계나 유전성, 조상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문제 등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타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안에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걸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유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에서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러니 그것을 다 해결을 하고 내가 뜻을 이루려면 그렇게 놓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 오온개공과 오분향례에 대해서

**질문** 저녁예불에 참석하면 오분향례와 반야심경을 같이 독송하게 되는데, 반야심경의 내용 중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언다면 일체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온개공과 오분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답변** 설법을 들으실 때에, 설법 아닌 게 없

지만 해당치 않은 말이라고 해서 허술히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머거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데 딴 사람이 천둥 번개 친다나 천둥 번개가 어딴냐고 고집을 부리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이 오묘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을 방편으로 써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부합을 시켜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에는 쓰고 배우면서 공부했지만 지금은 쓰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한생각을 하고 그것도 더불어 같이 한생각을 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서 탐구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자체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에 '이 사대(四丈)와 세상, 오온(五蘊)이 다 공(空)한 줄 알게 된다

니까? 향이라는 것이 어떠한 데에 쓰는 것이 향이나.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만이 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 종합해서 일체 만법을 행하는 데에, 마음 쓰는 데에, 뜻을 행하는 데에, 뜻과 행과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행의 계율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향' 한 것입니다.

'정향'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대와 오온이 전부 공한 줄을 알았다면은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며 일체 만법의 행을 하며 일체 만법의 눈을 뜨고 빛을 보며 또 일체 만법의 염파를 들으며, 또는 우리가 몸을 움직거리면서 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며, 뜻을 가지는 모두를 겸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주인공 자체, 그 자신의 실상, 근본을 믿고 거기에서 일일해서 맡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해서 '정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거지 나 없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바탕인 나의 주인공의 그 뜻을 가지고 일체 만법

의 마음을 내면서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공했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고 믿고, 거기서 전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오관을 통한 감각, 이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공부하는 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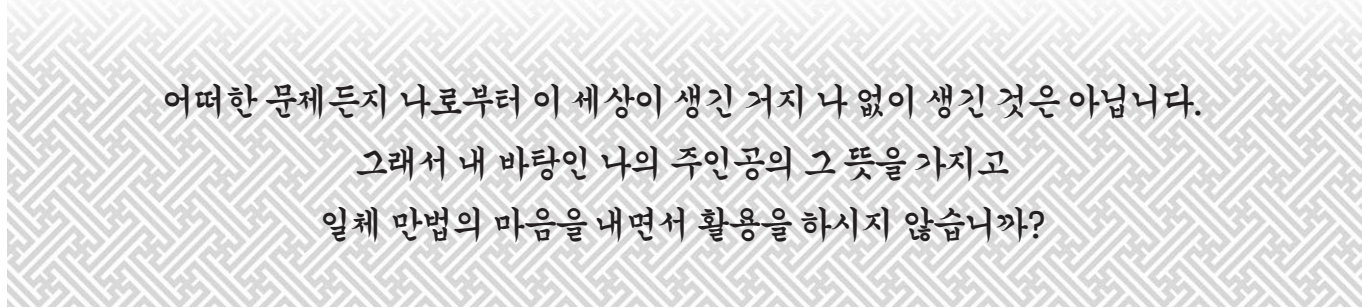
또 '혜향' 했습니다. 혜향이라는 것은 정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미각이나 촉각, 지각을 한데 합쳐서 마음 근본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가만히 안팎으로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고 능동적으로 마음을 쓰게 뒷받침을, 정향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에 거기다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혜향' 한 것입니다.

'해탈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에서부터 수 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고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진화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인간이 지마는 아직 50%가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맡기고 믿고 지켜보면,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공에 내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억겁에 걸친 업의 과보라든가 억겁에 대

한 죄업이 일기실기 다 묶어진 것을 풀게 하는 것이 해탈향입니다. 그러니까 억겁의 업보가 풀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해탈향'의 뜻입니다. 그러면 '해탈지견향'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모두를 놓고 항상 밝아서 유(有)의 법, 무(無)의 법이 같이 밝아서, 내 생명의 근원과 마음내는 것이 항상 밝으니, 이 육신도 밝게 행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다 밝아서 통달하고 보니까 무엇이 거기에 걸릴 바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해탈지견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예불에 이 오분향을 스님네들이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또 스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 아리송해서 '그거 참 이상해, 우리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이름 없는 마음' 여기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방편으로 부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연방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여쭙구니 없이 나쁜 일로 돌아가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업보에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착하게 행을 잘하려고, 말도 잘하려고 하지만 앞서 입력됐던 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빛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빛나거든 빛나가지 않든 무조건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맡겨 놓는다. 믿지 못하면 맡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고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실 사이 없이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그 어마어마하게 입력됐던 팔자 운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해 오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하게, 눈물이 뼈에 사무쳐 나오리만큼 안타깝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지 못할까? 어찌 그렇게 과거로부터, 수억억 광년 전으로부터 자기를 끌고 온 장본인을 믿질 못할까?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를 시켜 가면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것대로 끌고 다니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죠, 주인공 원망할 수도 없지,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아, 태양이 '너 잘못하고, 너 잘못하고' 이런 거 말했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잘못돼서 행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것이 속으로부터 자꾸 나오면 그것을 '이러면 안 돼!'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놓는 거죠. 맡겨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입니다.

나는 어떤 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슬그머니 이 속에서 눈물이 복받칩니다. 여러분을 생각만 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남인데, 자기가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변질돼서 돌아갈 때,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 부모가 됐다가 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사생(四生)의 모든 천차만별의 생명이 뒤바뀌면서 돌아갔을 때는 어떤 것이 내 자식이고, 어떤 것이 내 부모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뭐, 풍뎉이도 그렇고, 개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남녀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남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연방 변질이 되고 연방 바뀌어서 돌아가니까 어느 때 어떻게...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죠,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 행복하는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 뜻을 이미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건 부처님 앞에 정성들이는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면은 우리 스님네들만 계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스님네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지 스님네들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한다면은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일체 만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한생각 누워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죠. 가정에서나 내 몸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것이 계율에 어긋나 살림살이라면 그 살림살이는 벌써 어느 한 구석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끄트머리에 꼭 다 향, 향, 향, 향 했습니까. 왜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한지 아십

의 마음을 내면서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공했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고 믿고, 거기서 전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오관을 통한 감각, 이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공부하는 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혜향' 했습니다. 혜향이라는 것은 정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미각이나 촉각, 지각을 한데 합쳐서 마음 근본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가만히 안팎으로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고 능동적으로 마음을 쓰게 뒷받침을, 정향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에 거기다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혜향' 한 것입니다.

'해탈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에서부터 수 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고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진화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인간이 지마는 아직 50%가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맡기고 믿고 지켜보면,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공에 내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억겁에 걸친 업의 과보라든가 억겁에 대

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항상 오분향(五分香)을 합니다. 항상 그것만 잘해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만 잘 알아도 우리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 순탄한 삶을 살아가려면

**질문** 십여 년이 넘게 절집에 드나들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업이 많아서인지 일이 꼬이고 꼬이고 해서 단 하루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생각해 보면 한철 요렇게, 한 생을 요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를 다니면서 공부했다거나 짧은 시간에도 내가 공부했다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 해를 공부해도 '정(定)'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 10년 20년이 가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은 더디다 이거죠. 그런데 몇 달 안됐어도, 몇 해가 안됐어도 정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디고 빠르고 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래 배웠고 늦게 배웠고 이것이 없었다 이소립니다.

##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심맛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범위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범위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 날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동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